

[일본, 2013년 9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일본산 화훼 수출 진흥을 위해 5억엔 예산 추가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화훼의 수출 증대를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국산 화훼 innovation 추진 사업」 5억엔을 추가 요청

저가의 수입 화훼가 증가하는 가운데, 선도 유지가 뛰어난 일본산의 강점을 살려, 생산자의 관리 기술 도입이나 물류의 효율화로 생산 기반의 강화에 따른 국내외 수요 확대를 기대함

▶ 상미기한 표시, 「년월일」에서 「년월」 표시로 변경안

경제산업성과 식품업계는 상미기한 표시를 「년월일」에서 「년월」 표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 통조림 등 상미기한이 비교적 긴 가공식품이 검토 대상으로 효율적인 재고, 판매관리와 폐기처리 식품 축소 효과가 기대됨

▶ 세븐일레븐, 택배 매출액 3년간 5배 목표

세븐일레븐은 택배사업을 확대, 공장이나 고령자시설에의 배송을 시작. 2015년도 목표 매출액을 2012년도의 5배인 1000억엔을 목표로 함

▶ 한국산 다량어 검역 위반 사례

대일수출 다량어(제조자: 정해)에서 일본 키오미즈 검역소 검사시 대장균군 양성(성분규격부적합)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9.10)하여 모니터링 검사 실시가 요구됨

▶ 한국산 식품위반 사례

한국산 냉동식품 해물 미니 지지미(제조자: 대림)에서 오사카 검역소 검사시 대장균군 양성(성분규격부적합)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9.18)하여 자수검사 실시가 요구됨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7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5,161,543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 수입 1위국은 미국(18.6%), 2위 중국(13.4%), 3위 캐나다(6.6%) 순임

<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액 >

(단위:백만엔,%)

품목	'12년	'12년 1~7월	'13년 1~7월	증감율(%)
전세계	7,917,805	4,632,203	5,161,543	11.4
한국	187,489	104,735	109,178	4.2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단,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HS코드 1류~24류 합계 기준으로 산출

□ 야채

- 7월의 야채 수입동향은 신선야채가 전년을 크게 밀돌고 토마토 가공품도 감소하면서 수입량 전체로 8개월 연속 전년을 밀돌았음
-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95%인 232,105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81%인 62,770톤, 「냉동 야채」는 103%인 89,909톤, 「염장 등 야채」는 110%인 7,811톤, 「건조 야채」는 117%인 3,674톤, 「식초 조제야채」는 116%인 3,804톤, 「토마토 가공품」은 93%인 24,261톤, 「기타조제 야채」는 101%인 38,366톤, 「기타」는 99%인 1,510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82.4%인 5,490톤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선 야채」는 77.4%인 3,580톤, 「냉동 야채」는 137.5%인 22톤, 「건조야채」는 57%.1인 4톤, 「토마토 가공품」은 68.8%인 117톤, 잼이나 조제딸기등 「기타 조제야채」는 95.9%인 1,767톤으로 나타남

□ 신선야채

- 7월의 신선야채 수입량 62,770톤 중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토마토가 전년동월비 143%인 998톤, 결구양배추가 132%인 1,792톤, 블루코리가 115%인 4,013톤, 멜론이 108%인 2,419톤으로 나타남
- 결구양배추는 주산지인 군마현산이 5월의 저온과 강우량 부족의 영향으로 생육이 정체되면서 입하량이 적었고 수입량이 적었던 작년의 반동도 있어 전년을 웃도는 수입량을 보임. 수입 전량이 중국산임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양파가 전년동월비 68%인 22,633톤, 파프리카가 92%인 3,599톤, 생강이 95%인 1,498톤 등임. 양파는 수입이 많았던 전년의 반동으로 전년동월 수입량의 1/3을 밀도는 등 신선야채 전체의 수입량은 11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가공식품

- 7월 가공식품 수입금액은 1,608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 주류를 제외하면 1,388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함. 분류별로 보면, 농축산가공품, 곡물가공품, 음료, 조미료, 기타 조제식료품, 주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7월	2013년 1~7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4,632,203	5,161,543	11.4	미국	962,466	중국	691,592	캐나다	341,903
멜론(신선)	240	1,900	2,300	21.0	멕시코	2,000	한국	171	뉴질랜드	117
밤	2,696	285	398	39.9	중국	373	한국	13	이탈리아	12
딸기(신선)	240	740	875	18.3	미국	844	한국	24	-	-
토마토	738	977	1,602	64.1	미국	787	한국	518	캐나다	115
결구양배추	187	1,136	721	△36.5	중국	648	한국	39	대만	34
오이	1.5	16	0.3	△98.0	한국	0.3	-	-	-	-
가지	21	8	14	84.7	한국	14	-	-	-	-
기타버섯	106	102	122	18.7	한국	65	이탈리아	20	프랑스	11
고추· 피망속	7,586	7,464	8,482	13.6	한국	5,882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988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7월	2013년 1~7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파프리카	7,235	7,223	8,304	15.0	한국	5,707	뉴질랜드	1,586	네덜란드	986
계육조제품	885	97,853	115,023	17.5	태국	59,743	중국	54,449	브라질	325
추잉껌	54	73	70	△3.2	한국	39	캐나다	11	중국	10
코코아조제품	328	1,356	1,234	△9.0	싱가포르	761	한국	211	태국	138
인스턴트커피	1,000	4,835	6,158	27.4	브라질	1,848	한국	947	콜롬비아	788
알콜음료	27,058	114,820	131,485	14.5	프랑스	45,371	한국	15,652	미국	12,804
곤약	105	1,387	1,236	△10.9	중국	1,095	인도네시아	84	한국	57
원료인삼	169	3,334	1,924	△42.3	중국	1,812	한국	71	대만	40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파프리카

- 1~7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8,304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16.7% 증가한 5,707백만엔, 2위의 뉴질랜드산은 28.2% 증가한 1,586백만엔, 3위의 네덜란드산은 9.4% 감소한 986백만엔임

□ 기타 버섯

- 1~7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8.7% 증가한 122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65백만엔으로 나타남. 2위의 이탈리아산은 20백만엔, 3위인 프랑스는 31.2% 감소한 11백만엔임

□ 멜론

- 1~7월의 수입액은 21.0% 증가한 2,300백만엔. 수입 1위인 멕시코산이 22.2% 증가하여 2,000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7.5% 증가한 171백만엔, 3위가 뉴질랜드로 117백만엔으로 나타남

□ 토마토

- 1~7월의 수입액은 64.1% 증가한 1,602백만엔. 미국산이 75.7% 대폭 증가하여 787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36.7% 증가한 518백만엔, 3위가 캐나다로 91.7% 증가한 115백만엔으로 나타남. 업무용 수요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알콜음료

- 1~7월의 수입액은 14.5% 증가한 131,485백만엔. 1위인 프랑스산이 12.1% 증가한 45,371백만엔, 2위인 한국이 1.2% 감소한 15,652백만엔, 3위인 미국이 작년 3위국인 영국을 웃돌아 12,804백만엔임

□ 코코아조제품

- 1~7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1,234만엔. 수입 1위인 싱가포르가 21.5% 감소한 761백만엔, 2위인 한국이 23.4% 증가한 211백만엔, 3위인 태국이 55.1% 증가한 138백만엔으로 나타남

4. 동향 분석 [커트 야채]

□ 시장규모

- 커트야채의 판매량은 매년 확대 추세로, 신선야채 가격 상승시의 「대체품」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2012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판매추이가 지속되고 있음
- 커트야채 원료의 시장규모는 약600억엔, 커트야채 제조업의 시장규모는 약1,330억엔, 커트야채 판매 시장규모는 약1,900억엔, 슈퍼 및 식료품슈퍼의 커트야채 판매 시장규모는 약605억엔으로 추정

□ 메이커 및 아이템 동향

- 커트야채 출하 업체인 메이커수와 상품의 아이템수를 집계하면, 메이커수는 2010년도에 조금 감소하고 아이템수는 2010-2011년도에 감소했지만 2012년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커트야채의 아이템수를 보면, 매월 500전후에서 동일본대지진 발생한 익월 2011년 4월에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2013년 3월에는 매월 700개의 아이템으로 증가하고 있음

		
간편 야채	국 세트	커트야채 샐러드

□ 판매동향

- 커트야채의 1천명당 판매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128%로, 샐러드용이 122%, 조리용 등이 140%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또한, 커트야채의 1천명당 판매개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130%로 증가, 샐러드가 121%, 조리용 등이 143%로 나타남

< 커트야채 1천명당 판매금액 추이 >

(단위: 엔)

연도	전체		샐러드		조리용 · 기타	
	1천명당 판매금액	전년대비	1천명당 판매금액	전년대비	1천명당 판매금액	전년대비
2009년	28,910	-	20,437	-	8,473	-
2010년	31,923	110%	21,402	105%	10,521	124%
2011년	40,196	126%	26,895	126%	13,301	126%
2012년	51,280	128% (177%)	32,683	122% (160%)	18,597	140% (219%)

자료원 : 농축산업진흥기구 「야채정보」

※ 주: ()안은 2009년 대비율

< 커트야채 1천명당 판매개수 추이 >

(단위: 엔)

연도	전체		샐러드		조리용 · 기타	
	1천명당 판매개수	전년대비	1천명당 판매개수	전년대비	1천명당 판매개수	전년대비
2009년	230	-	147	-	83	-
2010년	265	115%	158	108%	106	128%
2011년	335	126%	199	125%	136	128%
2012년	436	130% (189%)	241	121% (164%)	195	143% (233%)

자료원 : 농축산업진흥기구 「야채정보」

※ 주: ()안은 2009년 대비율

□ 가격 동향

- 품목별 평균가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모든 품목이 200엔 미만으로 추이. 그 중에서 비교적 높은 단가로 추이하고 있는 품목은 수채와 믹스야채, 우영으로 양상추, 양파, 양배추는 비교적 낮은 단가로 추이하고 있음
- 또한 수채, 양상추의 평균가격은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믹스야채는 2012년도는 상승했지만 2009년도 가격을 밑돌고 있음. 한편 우영, 양배추는 하락 경향으로 전체 가격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음

□ 커트야채 이용 이유

- 커트야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에서 조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외에 1회 사용분의 적정용량의 편리성으로, 안심안전에 대한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는 소수에 한함
- 소비자가 커트야채를 구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가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식의 간편화로 사용하기 편리한 커트야채에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금후에도 커트야채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업자들도 상품 제조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소매점 등에서의 판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택배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커트야채 수요 증가도 기대 되고 있음
- 또한, 건강지향을 배경으로 한 야채 섭취 습관의 정착도 커트야채판매 신장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